

# 힘내세요! 농민·농촌

## 농협 전남본부, 11월까지 농협몰 '농식품 소비촉진 특별전'

원예농산물 등 20여종 마린  
임직원 2억원 상당 구매  
고향농산물 소비 캠페인도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오는 1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농협 임직원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식품 소비촉진 특별전'을 진행한다.

전남본부는 농협하나로유통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농협몰' (nonghyupmall.com)을 중심으로 이달 말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기획전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당한 전남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침체한 농식품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농협중앙회·경제지주·금융지주·생명·손해 등 범농협 8개 법인 임직원이 이번 기획전에 참여하게 된다. 다른 지역에서 근무 중인 전남 출신 농협 직원을 대상으로 고향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도 병행한다.

전남본부는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원예농산물 9종, 축산 5종, 양곡, 친환경농산물 등 20여 개를 엄선해 농협몰에 내놓는다. 광주지역에서는 비만과 염증을 잡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귀지뽕을 선보인다.



농협 전남본부 직원들이 30일부터 3개월 동안 열리는 '농식품 소비촉진 특별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전남지역 농협 직원 1000여 명이 각각 20만원 상당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면서 총 2억원에 달하는 소비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농협 측은 기대했다.

일반 소비자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농협가공식품, 내 고향 특산물 제품, 우수농산물인증 제품 등을 비롯한 국산 농·축산물을 편리하게 살 수 있다.

김석기 전남본부장은 "이번 수해로 전남 농촌에 엄청난 피해를 입어 농업인들의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라며 "전남농협은 우리지역 농업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수해복구 일손돕기, 물품과 자금 지원, 전남농산물 소비 캠페인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7일 광주·전남을 강타한 태풍 '바비' 영향으로 364ha 면적에 달하는 낙과 피해가 발생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접수된 전남지역 태풍 피해 면적은 벼 도복 170ha와 낙과 364ha이다. 이외 영암과 장흥지역 비닐하우스 4개동이 파손되고 무안농협주유소, 서영광농협 등이 농축협 시설 피해를 입었다.

이번 태풍 피해는 배 농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 주산지인 나주지역 배 낙과 면적은 100ha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목포·신안 55ha, 순천 50ha, 보성 19ha, 고흥 13ha, 장흥 12.4ha, 함평 10ha 등 피해신고가 농협 전남본부로 접수됐다.

벼 쓰러짐 피해도 고흥 32ha, 전남 29ha, 화순 20ha, 나주 18ha, 보성·순천·진도 각 15ha, 장흥 9.5ha, 목포·신안 8ha 등 총 170ha에 달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호남동계청 '2분기 어업생산동향'으로 본 해산물 표정

## 미역에 밀린 다시마 춤추는 바지락·갈치

전남 어업생산량 2분기 60만3560t...1년새 5만t 감소

올해 2분기 전남지역 어업생산량이 1년 전보다 5만t 이상 줄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2분기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어업 생산량은 60만356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5만7923t)보다 8.3%(-5만4363t) 감소했다.

이는 최근 5년 간 2분기 평균 생산량(52만8022t)과 비교해서는 14% 가량 증가한 수치다.

어업별로 바다 어업생산량인 천해양식어업이 56만8189t으로 9.0%(-5만6318t), 민물 내수면어업 또한 2040t으로 3.6%(-76t)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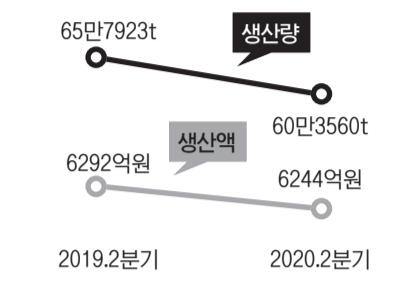
바다에서 각종 어패류를 포획, 채취하는 일반해면어업은 3만3330t으로 6.5%(2029t) 늘었다.

어업 생산금액은 6244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6292억원) 대비 0.8%(-48억원) 줄었다.

어업별로 보면 천해양식어업이 3302억원으로 3.0%(-102억원) 감소했고, 일반해면어업은 2354억원으로 0.4%(9억원), 내수면어업은 588억원으로 8.3%(45억원) 증가했다.

바지락(1770t)은 순조로운 해황으로 생

■전남지역 어업생산동향



산량이 증가(89%)했고, 제주북부 및 서부 근해를 중심으로 어장이 형성된 갈치(768t)는 조업 일수와 어군 형성이 좋아 어획량이 증가(99.7%)했다.

다시마류(39만5000t)는 전북 먹이용으로 미역이 많이 활용되면서 시설량이 감소하고 해수온 상승 등 해황 악화로 생산량이 16.0%(-7만5397t) 줄었다.

김류(5만8500t)는 시설량 감소와 서남해 해역의 고수온과 갯벌으로 생산량(-1만5000t)이 감소했다.

뱅장어(1538t)와 미꾸라지류(11t)는 치어 가격 상승으로 입식량이 줄고 코로나19로 인한 외식 수요 감소 등으로 생산량이 각각 7.5%와 78% 줄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 도심형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 '쑥쑥'...개점 잇따라

지난해 실적 83억·올 7월까지 79억...매년 2배 향상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직거래로 만날 수 있는 도심형 로컬푸드 직매장이 광주에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30일 농협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본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총 9곳이다.

광주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은 지난 2018년 38억9400만원, 2019년 83억 5300만원, 올해 7월 말 79억7500만원 등 매년 2배 이상 실적을 거두고 있다.

지역 농·축협이 독립매장과 '삼인삼' 형태로 운영하는 매장이 대부분이며 지난해 3월에는 광산구 신가동 농협하나로유통 광주유통센터에도 직매장이 생겼다.

광주농협은 지난 2013년 하나마트 두암점을 시작으로 이달 26일 북구 일곡동에 로컬푸드 직매장 5호점을 내며 가

장 많은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광주농협은 기존 15평(50㎡) 규모 하나마트 일곡점을 개조해 1층에 456㎡ 규모 로컬푸드 직매장(육외점포 포함)을 새로 냈다.

광주농협은 지난 2018년 11월 629㎡ 규모 동광주점을 내며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을 본격화했다. 광주지역 로컬푸드 직매장 가운데 매출 최상위권에 든 이곳은 개장 한 달 만에 매출 4억7000만원을 기록하고 2019년 23억9800만원, 2020년 7월 말 27억2800만원 등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진섭 광주농협 조합장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기반으로 둔 광주농협 소속 7개 하나마트의 지난해 매출은 300억원을 달성하고 올해 들어서는 22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며 "로컬푸드 직매장이



강형구(왼쪽 두번째) 농협 광주본부장 등이 지난 26일 광주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일곡점 개점식에 참석해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소비자에게는 편의를, 농업인에게는 항상 된 소득을 안겨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외 서광주농협은 70㎡ 규모 독립매

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등농협(115㎡), 남광주농협(105㎡) 등도 로컬푸드 직매장을 열어 지역 소비자들을 만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힘 못쓰는 가을 꽃게

긴 장마·저수온에 성장 늦고 태풍에 어획량 감소

올해 전남지역 봄 꽃게 생산량이 5분의 1 가량 감소한 데 이어 가을 꽃게도 기상 이변으로 어획량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에 따르면 봄 꽃게가 제철인 4-5월 전남지역 꽃게 생산량은 276t으로, 1년 전(351t)보다 21.4%(-75t)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꽃게 어획량도 지난해보다 38.2% 감소했다.

봄 꽃게 어획량은 줄었지만 어민들은 올해 가을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어선의 활동이 줄고 다양한 방류 사업이 이뤄져 꽃게 어획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봄철 꽃게는 알이 딱 찬 '암 꽃게', 가을 꽃게는 살이 꽉 찬 '수 꽃게'로 유명하다.

그러나 5주 간의 장마로 서해 표층 수온이 2-3도 낮아진 데다 꽃게 탈피도 늦어져 체장 미달 꽃게만 주로 잡히는 현상이 벌

어졌다. 100g 미만의 체장 미달 꽃게는 다시 바다에 놓아줘야 해 시간과 인력이 두 배로 든다.

이어 이달 25-28일 나흘 동안에는 8호 태풍 '바비' 영향으로 어획 작업을 하지 못했다. 지난 20일 금어기가 끝나고 9일간 본격적인 어획을 하지 못한 것이다.

유통기는 선박 계약 등을 통해 꽃게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마트는 열악한 어획 상황에서도 가을 꽃게 물량 70t을 확보해 다음 달 2일까지 100g당 900원대에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이달 27일 노랑진 수산시장의 수꽃게 경매 시세가 1kg당 1만5545원인 것을 고려하면 도매가보다 약 37% 저렴한 가격"이라며 "4일간 이마트 점포당 하루에 약 400-800마리가 공급된다"고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hi 휴인(주) 문의상담 062) 945-0036~7

Modern | Classic | Mediterranean Sea |

클래식 스타일 | 지중해 스타일